

## 4~5» 길게읽기-자치회비 들여다보기



## 8» 과일가게 '청춘 과수원' 사장 이상명 군



## 2015학년도 후기 졸업사정대상자 예비졸업사정 시행 안내

1 대상자 : 2015학년도 후기(2016년 8월) 졸업 대상자  
2 기간  
가. 예비졸업사정기간 : 2016. 03.28(월) - 04.01(금)  
나. 졸업대상자확인기간 : 2016. 04.04(월) - 04.06(수)  
다. 예비졸업사정 최종결과 확인 : 2016. 04.11(월)부터



## 응용과학대학, 유럽항공우주국과 '천리안 2호' 개발 연구협약 체결

지난 21일 우리학교 응용과학대학 우주과학탐색체 연구실과 유럽항공우주국이 국제연구협약을 체결했다. 정부 주도 우주탐사사업에 대학교가 포함된 경우는 이번이 우리학교가 최초다. 사진은 개발중인 부품을 실험하고 있는 우리학교 천문대 지하 청정실 모습이다 (사진, 기사=양윤혁 기자)

## Newsmaker

투명한 학생회를 만드는  
최상현(경영학 2012) 군



## “학생회 진심 통할 때까지 다가갈 것”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 매달 경영대학 로비에 학생회 임원단의 사진·개인번호가 게시된 대자보를 붙여 그 달 학생회 활동 내역을 보고하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록 이벤트를 열어 불편사항 모집창구를 홍보하는 등 경영대학 14대 학생회 '더함'은 신선하고도 대담한 계획을 꾸려 학생사회에 새바람을 부르고 있다. 더함을 이끄는 경영학과 최상현(경영학 2012)회장을 만나봤다.

“1학년 때 학생회 활동을 하며 학생들의 불신을 채감했다”며 “그때 처음 학생회장이 돼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말한 최 회장은 출마 당시 실제로 지인들에게 ‘학생회장 되면 돈 걱정 없어진다더라’라는 등의 편견 섞인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 학생회 소셜미디어 친구등록 불편사항 제보 받아

때문에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그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바로 학생회와 학생들 간의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다. 그는 경영대학이 휴학생 포함 약 3,000명 규모로 서울캠퍼스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단과대학인 데다, 단 두 가지 학부로만 나뉘어 있어 소통채널 형성이 어렵다는 사실을 오해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기획 중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록을 통한 불편사항 모집, 공식적인 각 반 반장 선출을 통한 소통체계 강화 등이다.

특히 학생회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등록해 불편사항을 제보 받은 후, 그 해결 여부를 매달 대자보 게시를 통해 알리는 구조를 만든다

는 계획이 인상적이다. 소통체계를 강화하면 비난받는 일이 오히려 많아질 수 있다는 것에 부담은 없냐는 기자의 말에 “욕먹으려고 시작한 일이다”라고 답변한 최 회장의 진정성 또한 그렇다.

또한 그는 학생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경영대학 학생회를 비영리 법인으로 동대문구청에 등록할 예정이다. 개인통장이 아닌 법인통장으로 학생회비 관리가 가능해지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1년 단위 추경예산을 공개해 학생회비 낭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올해 경영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당시 그는 ‘본래 학부 선배가 진행하던 행사에 전문 레크리에이션 진행자를 초빙해 학생회비를 낭비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최 회장은 “올해 구상 중인 학생자치사업을 진행하는 데 쓰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인 업체를 고르고 고른 끝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비용을 작년 대비 약 1,000만 원 가량 절감했다”며 “전문 레크리에이션 진행자를 초빙한 것은 오롯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고 반응 또한 좋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사실 학생회 측에 직접 의문점을 말해줬으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논란이 발생해 당황했다”며 “아직 소통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느껴져 아쉽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어떻게 하면 경영대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학생회 모두가 진심으로 임하고 있으니 학생들이 조금 더 관심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신설 학과 캠퍼스 위치 두고 ‘갑론을박’

## 학생회, 캠퍼스 이원화 역행 ‘우려’ … “귀가 막혔나” 부적절한 교무위원 발언 ‘눈살’

### 프라임 사업 준비위 최종 워크숍

이성민 기자 lsm1590@khu.ac.kr

프라임사업 사업계획서 제출을 앞둔 지난 21일 국제캠퍼스(국제캠) 중앙도서관 피스홀에서는 조인원 총장이 주재한 프라임사업 준비위원회 워크숍이 열렸다. 워크숍에는 부총장단, 미래정책원장, 서울/국제 준비위원회 위원, 학문단위 기획 TF를 비롯해 각 캠퍼스 학생대표도 참석했다.

워크숍에선 프라임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 보고가 있었다. 먼저 미래정책원 신상협(국제대학원) 원장은 프라임사업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며 워크숍을 시작했다. 신 원장은 “우리학교의 미래전략과 프

라임사업의 방향이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 효과 역시 “바이오헬스, 미래과학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사회 진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미래정책원 김종백(사회학) 부원장은 정원조정을 포함해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했다. 김 부원장은 학문단위 조정 계획에 대해 “보건·의료분야와 CK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과는 정원조정에 포함되지 않아, 정원 증감에 다소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학과별 정원 증감 기준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기초학문 분야는 감소됐고,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으며 프라임사업의 수범사례가 될 수 있는 학과의 정원은 증가됐다”고 밝혔다.

공과대학 임성수(기계공학) 부학장은 신설될 단과대학을 보고하면서 미래과학 클러스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부학장은 “미래과학 클러스터는 다양한 미래지향적 주제를 갖고 산학협력과 대학원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새로 신설될 단과대학은 이러한 연구와 산학 협력을 교육적인 부분에서 지원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신설될 단과대학이 “현재와 미래 사이의 현실적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프라임사업을 통해 개편이 예상되는 생명과학대학 백광희(생명공학원) 학장은 “바이오와 의료기술의 융합으로 신 의료기술이 등장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백 학장은 “2020년 정도가 되면 바이오 혁명이 도래할 것”이라며 “현재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 정책 지원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새로운 융합기술을 통해 상업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백 학장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트랙을 신설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계획 보고가 끝난 후에는 구성원간의 논의가 있었다. 전자정보대학 이수열(생체의공학) 학장은 새로 신설될 학과가 편제는 국제캠에 있으나 위치는 서울캠에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3면으로 이어짐

# 타자의 얼굴

##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①

이은정 후마니타스 칼리지 중핵교과

타자(他者)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 그는 먼저 자신과 구별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 친구, 동료 등 나와 공유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은 강력한 공격 본능을 지닌 동물이다. 동시에 집단적인 결속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동

물이다. 때문에 인간의 폭력적 성향이 분출되는 가장 손쉬운 대상이 바로 타자이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형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은 강력한 공격 본능을 지닌 동물이다

성해준 근대 자유주의 사상은 한 인간을 ‘개인’으로 파악하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경제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생명, 재산에 대한 소유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개인의 자유란 소유물 획득을 위해서 나의 신체를 사용할 권리, 달리 말하면, 타자로부터 나의 소유물들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이다. 또한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합리적인 대화와 협상, 계약의 관계로 파악된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소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소유양식으로서의 실존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뜻한다. 도시화와 과정에서 탄생한 근대사회의 심리적 특징이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반감, 계산적 이성과 속내감추기라는 것은 이를 잘 드러내준다.

이런 현대사회에서 나와 아무런 혈통이나 친분, 이해도 공유하지 않는 타자는 수많은 사회적 관계 속에 놓여있는 하나의 사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또는 정치철학의 아버지 토마스 홉스처럼 나의 소유물과 권리를 언제든지 침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된다.

▶7면으로 이어짐

## 알림

###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 전문가 칼럼

### 우리가 투표를 해야하는 이유

임형진 (후마니타스칼리지)교수 >>7면





시선

사설

프라이м사업, 계획서 제출 후  
구성원 소통이 더 중요하다

우리학교가 프라이м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불가 피성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재정’의 문제일 테다. 재 정 없는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이 다. 프라이м사업 대형 사업에 지원하는 우리학교는 선정 될 경우 최대 300억 원이라는 지원금을 얻어내게 된다. 학교의 주장대로 프라이м사업에의 참여가 우리학교의 장기적 발전계획에 부합한다면, 이 재원은 아주 좋은 효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재정’ 그 자체가 우리학교의 프 라임사업 참여의 제1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 제1 목적은 위에서도 적시한 바, ‘프라이м사업에 참 여하는 것이 우리학교의 장기적 발전계획에 부합’하기 때문이어야 한다.

프라이м사업의 막대한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서울 대,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 유력 대학들은 이 사 업 대신 CORE사업을 선택하며 사실상 프라이м사업에 불참을 선언했다. 여기에는 각 대학 나름의 사정이 있 을 수 있겠으나, 대체로 ‘강력한 수준의 학문단위 재조 정’과 ‘인위적 구조조정’이 반드시 수반되는 프라이м사 업 참여과정에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 유력한 관측이 다. 환언하면 이 유력대학들은 프라이м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스스로의 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 단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학교가 프라이м사업에의 참 여를 선언한다면, 우리는 사업참여와 함께 따라오게 될 이 ‘강력한 수준의 학문단위 재조정’과 ‘인위적 구 조조정’ 등이 우리학교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성과 일 치한다는 것을 앞으로의 실천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증명해내야 한다.

하지만 경쟁 대학 간 사업계획서 유출을 극도로 방지 하는 분위기인 프라이м사업 준비과정의 특성상, 지금까 지 대학본부 측은 우리학교 프라이м사업 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구성원에게 거의 비공개로 일관해왔 다. 구성원의 입장에서선 코앞으로 닥친 학문단위 재 조정과 인위적 구조조정이 과연 우리학교의 청사진에 부합하는가를 따져볼 기회가 없었던 것은 물론, 당장 ‘내’가 속한 조직이 학제 개편의 대상이 되는지 조차 가늠할 수 없었던 형국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원의 불안은 프라이м사업에 대한 건강한 논의가 아닌 감정싸 움의 양상으로 번져나가는 추세다. 경쟁 대학인 중앙 대학교가 양 캠퍼스 전체 구성원을 상대로 각 한 번 씩 설명회를 여는 등 사업 참여를 위한 소통작업을 해왔 음을 감안하면, 그간 우리학교의 전체를 위한 소통 노 력은 아쉽다고 하겠다.

사업 선정 이후, 앞으로의 진행을 통해 우리가 감행 한 학문단위 재조정과 인위적 구조조정이 우리학교의 청사진과 일치함을 증명해가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 의 단합된 힘과 의지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오는 31일, 교육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직후부터 대학 측이 전 구성원을 상대로 학과 개편 및 인원 이동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양한 소통체계를 마련해 현재 양 캠퍼스 구성원이 갖고 있는 술한 의구심을 해소하 고 구성원을 설득하여 단일한 힘으로 응집시키는 것이 당장 대학본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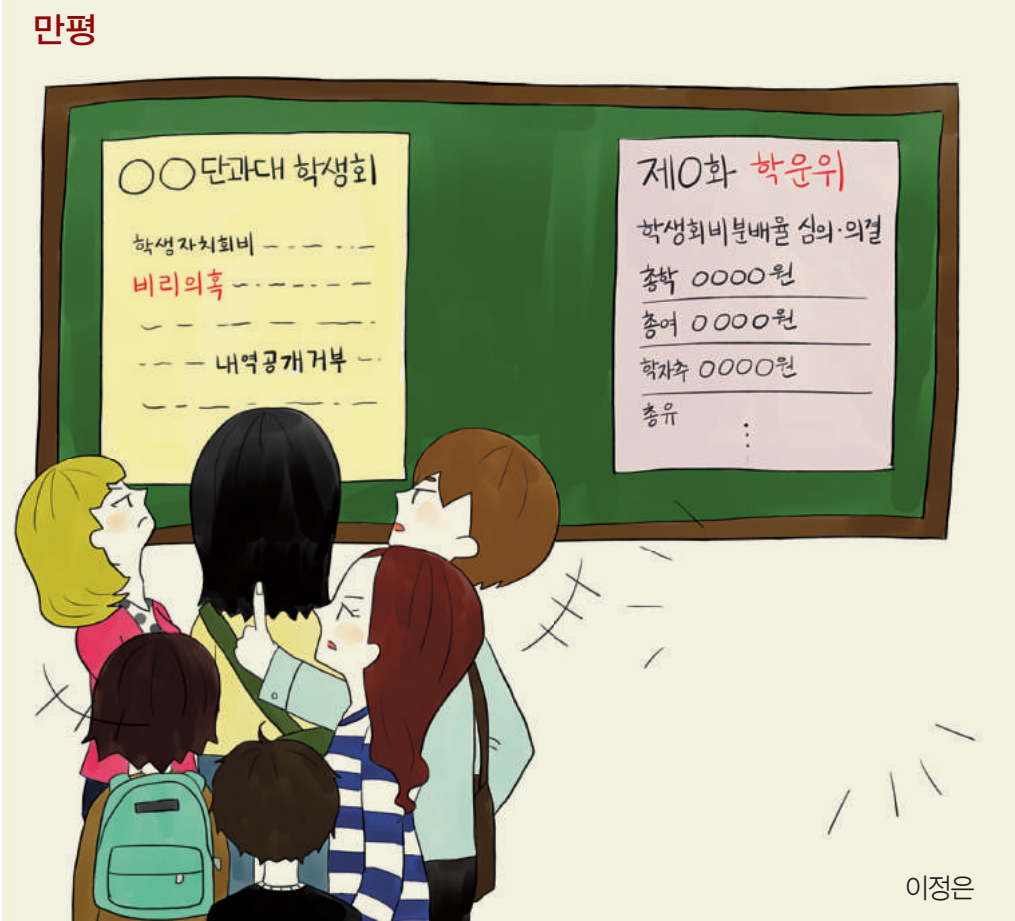
“지난해 기준 자치회비 분배  
한다면 학생회 운영 어려워”

미디어 여론동향 2016. 03. 14. ~ 03. 25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지난 21일 오비스를 411호에서 총학생회(총학)가 주 관한 제1차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가 열렸다.(서울 캠프 제1차 확운위, 단과대학 학생회 “자치회비 분배액 받아들이기 어려워”/대학주보 온라인, 2016.3.23) 이 번 확운위에서 총학 측은 방증활동 보고·자치회비 사 용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한 뒤 곧바로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안건을 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학 사업계 획서’와 ‘1학기 자치회비 분배율 심의’ 등이었다. 첫 번 째 안건으로 다룬 ‘사업계획서’는 ‘공약이행’과 ‘신뢰 회복’이 주안점이었다. 총학 정주희(사학 2012) 회장은 “학생자치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불 때마다 학생사회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이주의 주제 - 학생자치회비를 통해 바라본 ‘학생자치 주인의식’  
꾸준한 관심이 ‘신뢰 받는 학생자치’ 만든다



우리는 월드컵에 열광한다. 세계 무대에서 그라 운드를 누비는 우리나라 선수들은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다. 대회가 열리는 기간이면 사람들은 광장을 붉은 옷으로 물들이며 축구의 매력에 한껏 빠져든다. 하지만 축구에 관한 관심은 거기까지일 뿐, 정작 우리나라 선수들이 뛰고 있는 자국리그인 ‘K-리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학생자치회비를 취재하면서 느낀 점 또한 이와 같다. 얼마 전 체육대학의 오리엔테이션 비용 논 란으로 촉발된 ‘자치회비 운용’에 대한 의혹처럼 큰 사건이 터질 때면, 학생자치에 대한 수많은 관 심과 함께 다양한 비판이 쏟아진다. 하지만 문제 가 일단락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이 끝나면 학생자 치에 관한 관심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실제로 우리 신문의 온라인 기사 조회 수와 페 이스북 페이지의 도달 범위를 분석한 결과, 문제 와 의혹이 터진 내용을 다룬 기사에 대해서는 평 상시 조회 수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의 관심이 쏟아 지지만 정작 학생자치 활동 전반을 논의하고 학 생자치회비 분배율을 심의·의결하는 여러 기구에 관한 기사의 관심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나 ‘확대운영위원 회’, ‘중앙운영위원회’같은 기구를 말이다. 학생자

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작 사건 이 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논의하는 자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것이다.

우리 학교의 자치회비 납부율 역시 5년간 약 10% 가량 낮아졌다. 평상시 학생자치회에 대한 낮은 관 심도는 이미 자치회비 납부율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던 셈이다. 작년 5월 총학생회의 설문조사 결과 는 일반 학생들의 ‘학생자치’에 대한 낮은 신뢰를 보여준다. 자치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학생회에서 자치회비를 의미있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가 71.8%로 가장 많았다. 결국 낮은 신뢰와 관심은 학생자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다시 일반 학생에게로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다시 축구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혹자는 K-리 그가 인기 없는 이유로 “낮은 수준의 경기력과 떨어 지는 리그 수준”을 꼽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축 구 강호 속에서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이유 는 그 밑바탕에 K-리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 생자치도 마찬가지다. 총학생회 회장 1장 5조에는 ‘우리 학교의 모든 재학생이 곧 총학생회의 회원’ 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다. 학생회는 학생회 임원 들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다. 큰 사건 이 있을 때만 해당 화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 아닌, 더 나아가 우리는 상응하는 문제인식과 함께 주인 의식을 가져야한다. 즉, 학생회가 진정 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평소 학생자치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 한 것이다. 구성원들의 활발한 참여와 건전한 논 의로 학생자치가 더욱 건강해지길 바란다.

철저하게 준비된  
‘이원화 기준’이 필요하다

세시봉

이시은 <편집장>



프라이м 사업이 대학가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지도 4 개월가량이 흐르고 있다. ‘이원화 캠퍼스’라는 특수 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학교는 온라인에서 연일 갑 론을박이 한창이다.

관련한 수많은 댓글의 중심내용은 캠퍼스 간 갈등 이 대부분이다. 프라이м 사업이 사실상의 ‘이공계열 확 충 사업’인 만큼, 이공계열 특성과 캠퍼스의 입지를 굳히려는 국제캠퍼스(국제캠)와 정원 손실을 막고 캠퍼스 내에 이공계열 학과를 끌어오려는 서울캠퍼스(서울캠)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다.

‘캠퍼스 특성화’ 문제가 한두 해 제기된 것이 아닌 만큼, 캠퍼스 간 온도차는 크기만 하다. 때문에 항상 종래에 가서는 ‘중·장기적 해결’, ‘추후 논의’와 같은 결론이 나고 만다.

문제는 처음부터 존재해 왔다. 80년대 공학계열 국 제캠 이전 직후 아찔 수 없이 중복으로 설립된 국제캠 자연과학계열 전공들, 소속 단과대학이 이전하는 가 운데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해 학부로 독립한 무용학 부 등. 우리 학교의 이원화 역사는 혼돈 그 자체였다.

기준 없는 이원화, 대내외적 혼란 초래  
더이상 ‘추후 논의’로 미룰 수 없어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공계열 선호현상’과 겹쳐 극을 달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프라이м사업의 정보디 스플레이학과 정원확대 가안에 더해, 아예 대학본부는 프라이м사업 소통회의장에서 이학계열인 정보디스플레 이학과를 ‘공학계열’로 분류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과 대학 주도의 ‘신설학과’ 역시 그러한 현상의 예시다.

이러한 기준 없는 이원화는 대내외적으로 혼란을 초래한다. 이름만 바뀌놓은 사실상의 ‘중복계열’들이 운영되며, 명분뿐이었던 ‘순수·응용’ 이원화 기준은 무너졌고, 게다가 캠퍼스 명칭까지 타 대학의 본·분교 명칭 방식과 같아 오해하기 쉽다. 재학생조차 양 캠퍼스 운영 방식이 이해가지 않는데, 외부 입시기관이나 일반 기업을 제대로 이해시키는 것은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학습권 보장’이나 ‘학문 간 융합’을 방패삼아 기준 없는 이원화를 운영하려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행위 다. 이원화 캠퍼스에서의 ‘학습권 보장’ 형태가 이미 존재하는 ‘중복 계열의 지속’이라면, 이는 반드시 반 대쪽과의 부딪힘을 전제하는 것이다. ‘학문 간 융합’ 역시 기준 없이 분류된 현재 상태에서 각 캠퍼스가 ‘있는 재료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끼워 맞추기식’ 처사다.

‘이원화’의 본래 의미로 돌아가자. 진작 해결했어야 할 사항을 미루고 있는 와중에도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치밀하게 연구된 이원화의 기준과 철 저한 행정개편으로 향후 10년, 20년의 미래를 내다보 지 못한다면 우리학교가 외치는 ‘미래 문명’에 있어 가장 첫 번째 낙오자가 될 것이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 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혜경 | 편집장 이시은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33-4 | 주소정경 02-441-7317(미래7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희기동) /Tel 02-961-003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현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1면에서 이어짐

이 학장은 “새로 생기는 이공계열 학과는 국제캠퍼스에 두는 것이 옳다”며 “더불어 이는 프라임사업의 요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정백 부원장은 “학과를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으나 캠퍼스 간 이동 문제에 대해 지금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원장은 “신설될 학과가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구할 수 있도록 이과대학과 경영학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서울캠퍼스에 설립하게 된 것”이라며 “다만 대학교육협의 회 분류 기준에 따라 국제캠퍼스 편제 아래 두는 것”이라 밝혔다.

논의 과정에서 국제캠 총학생회와 대학 본부 간의 공방도 있었다. 쟁점은 캠퍼스 이원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국제캠 총학생회 김병경(체육학 2009) 학생회장은 “국제캠 총학생회는 처음 소통위원회를 거치며 학교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프라임 사업을 지지했다”며 “이는 국제캠 총학이 바라던 모습과 프라임사업의 목표가 일치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밝혔다.

### 국제캠 총학 “신설학과, 서울캠에 이공계학과 증설처럼 보여 우리”

하지만 김 회장은 “신설될 학과를 보면 서울캠에 이공계 학과가 증설되는 것처럼 보여 국제캠 학생들은 걱정스러워 한다”며 “신설학과가 서울에 위치만 하고 소속이 국제캠이라면 이원화 문제해결을 위해 서라도 국제캠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이동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군대 서울캠 부총장은 이에 대해 “학과가 서울캠에서 국제캠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사회과학과 이학계열의 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의 정원을 조정해 신설한 것”이라 답변했다. 하지만 국제캠 진도원(스페인어 학 2011) 학자사무국장은 “프라임사업이 이원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했으나 학교 측은 ‘아직 시기가 아니다’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온라인 상의 학생들의 여론을 보면, ‘서자 노릇 하는 것도 지친다’, ‘프라임사업 반대 탄원서



국제캠 총학은 “신설학과가 서울에 위치만 하고 소속이 국제캠이라면 이원화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국제캠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이동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제출하겠다’ 등의 반응이 대다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 부총장은 “인터넷에 그런 글이 올라왔다고 해도 그것을 일반화 시키는 것은 문제”라며 “온라인 상의 글들이 다수 국제캠 학생들 주장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로도 총학 측으로부터 관련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한 부총장은 ‘오늘 자리는 약속을 위한 자리’가 아니니 추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한편 김 회장은 캠퍼스 간 학과이동에 대해서도 적극 의견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외국어대학이 올라가고, 국제대학이 올라가는 것은 교지문제 등 법적으로 제한돼 있는 것을 안다”며 “4월, 프라임사업에 선정되고 나면, 그 직후 교지를 바로 측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제캠 총학 측은 프라임사업 이후 캠퍼스 특성화 관련 문제에 대해 구두가 아닌 서류상의 약속을 요청했다.

회의 중 일부 교수들은 학과 이동 논의에 반발하기도 했다. 호텔경영대학 변정우 학장(호텔경영학)은 “단과대학마다 이해관계를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이라며 “캠퍼스 간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지속적인 국제캠 학생대표들의 주장에 이과대학 이기태(생물학) 학장은 “귀가 막혔는지 김 부원장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설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에 안 듣고 있다”는 발언을 내뱉어 주위를 아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 한군대 부총장 “신설학과는 학문간 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설한 것”

회의 말미 조인원 총장은 “유익한 자리였으며 전체 문건을 보는 것은 본인도 처음”이라며 “마지막까지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안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총장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서두르게 된 과정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서로 양해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신 원장 역시 “이번 프라임사업을 계기로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우리(미정원)를 믿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미래정책원과 국제캠 총학 측은 22일, 회의 당시 나온 요구안에 대해 추가 협의 테이블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건국대, 총장실 점거 항의도

프라임 사업, 타 대학 진행 상황은

김도엽 기자 wogmd567@khu.ac.kr

프라임 대형 사업 계획서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프라임 대형 사업은 2017년부터 3개년 간 매년 150억 원을 받는 것으로, 최종 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학은 매년 30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형 사업은 입학정원 10%(최소 100명 이상) 혹은 200명 이상의 정원이 동을 조건으로 하며, 사회 변화와 산업수요 중심으로 대학 전반의 학사조직과 정원 조정을 선도해야 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대표적인 수도권 대학으로는 우리학교를 포함해 건국대, 숙명여대, 중앙대가 있다. 서울대나 연·고대, 한양대(서울) 등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건국대가 발표한 프라임사업 가안에는 생명·IT공학 분야의 융합학과 신설안이 포함돼있다. 건대신문에 따르면 300명 정도의 입학정원 이동을 고려하고 있다. 동물생명과학대의 바이오산업공학과는 2017년부터 바이오시스템공학과(가칭)로 변경돼 이공계열 관련 수업의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프라임사업으로 폐지되는 과는 없으며 바이오산업공학과는 폐과가 아닌 개편이다. 설명회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숙명여대는 학적개정안을 통해 올해 신설된 공과대학을 바탕으로 기존 이과대학이었던 컴퓨터과학부와 나노물리학과를 공과대학으로 이동한다고 공지했다. 학과별 구체적 정원 이동 계획도 발표했다. 학적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학과를 제외한 기존의 46개 학부 중 40개 학부에서 인원을 감축했으며, 총 323명의 인원이 이동됐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입학정원이 약 2천명이므로 300명의 이동은 약 15%에 해당한다.

중앙대는 공대와 창의 ICT공대를 합쳐 창의공과대학(가칭), 휴먼문화기술대학(가칭), 바이오식품공학대학(가칭)을 신설할 예정이다. 중대신문에 따르면 사회적

수요에 맞춰 이공계열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정원 이동 계획에 대해서는 타 대학과 유사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고 있다. 사업 자체가 점수를 책정해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 제출 전에 미리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프라임사업 선정평가 항목과 배점을 보면 ‘대학 여건과 학과개편·정원조정 계획’이 42점, ‘교육과정 혁신 및 진로교육 내실화’가 32점, ‘정원감소 분야 대책 및 대학 구성원간 합의’가 6점 등으로, 총점은 100점이다. 그러나 프라임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의 설명회를 참고해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점수가 큰 ‘정원조정 계획과 교육과정 혁신’(74점)에 중점을 두고 있고, 상세한 정보공개는 꺼려하고 있다. 우리학교와 중앙대는 구체적 정원이동 계획을 사전 정보 유출 방지를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

구성원 간 합의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교가 진통을 겪고 있다. 건국대는 지난 1월 10일 프라임사업을 위한 학과폐지 통보를 ‘카카오톡’으로 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국민대는 지난 3월 22일 학생 800여 명이 프라임사업에 반대하며 총장실을 점거했고, 인하대 총학생회는 지난해 12월 대학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우리학교는 정보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장을 제외한 일반 학생들에게 회의 참석을 허락하고 있지 않다.

현재 프라임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의 정원조정 계획과 교육과정 혁신 항목 등과 관련한 점수는 배점(74점)이 높아 모든 학교가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구성원 간 합의’ 6점에서 결과가 갈릴 수도 있다. 지난 주 총장 주재 프라임사업 워크숍에서 조인원 총장은 “프라임사업 최종안은 모든 구성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프라임사업은 오는 31일 최종 마감 후, 결과는 4월말 발표 예정이다.

# 우리학교 프라임사업은 어떻게 진행돼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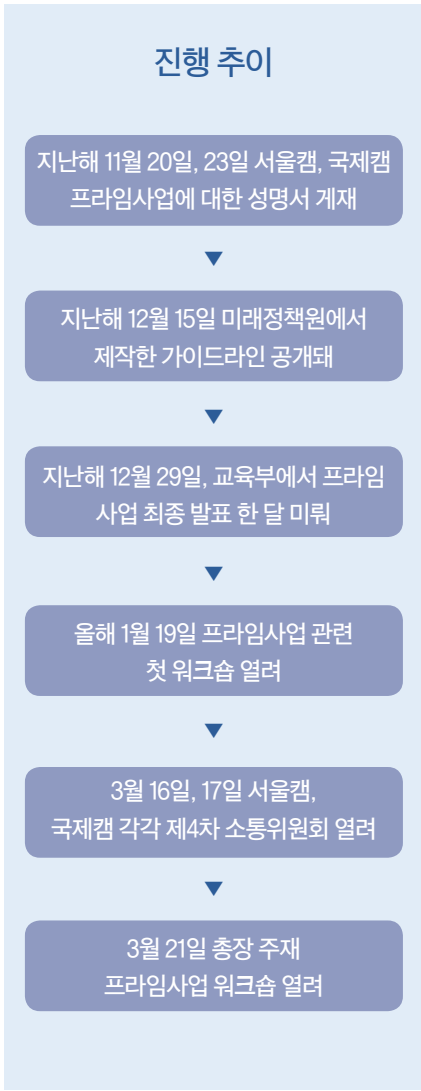
프라임사업 진행 경과

이성민 기자 lsm1590@khu.ac.kr

#. 프라임사업에 대한 얘기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7월부터다. 지난 9개월 동안 프라임사업을 준비해온 미래정책원(미정원)을 비롯해 학내 많은 구성원이 이 사업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프라임사업 계획서 제출이 3일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신문은 지금까지 사업의 준비과정과 관련 논의 등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지난해 7월 우리신문은 대학본부 측과의 인터뷰에서 8월 말 프라임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8월 말 미정원 측에 연락을 했으나 9월 초에나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고, 9월 초에 다시 “10월 중순에 연락하겠다”며 ‘나중’이란 말만 되풀이했다. 프라임사업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11월부터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는 지난해 11월 20일,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은 23일 프라임사업에 대한 성명서를 게재했다. 당시 양 캠퍼스의 성명서는 공통적으로 논의 과정에 학생대표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학교 측의 일방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지난 12월 중순에는 외국어대학(외대) 교수들이 <캠퍼스 별 특성화와 학문별 통



지난 21일에 개최된 총장 주재 워크숍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합을 요구한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외대 교수들은 “본·분교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당시 대학본부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외대 교수들은 총장과의 대화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학본부의 답은 끝내 없었다.

성명서 이후 지난해 12월 중순 미정원에서 제작한 ‘학문단위 재조명 및 개편 가이드라인(안)’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학교가 ‘모른다’고 답했던 것과는 달리 상당한 구체성을 갖추고 있었다. 국제캠 총학은 성명서를 통해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현재 남아있는 본·분교 관련 문제들을 더욱 심화시킨다”며 “학교 내 갈등만 조장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12월 29일 교육부가 프라임사업 최종 선정을 한 달 미뤄 잠시 대학본부 측과 학내 구성원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후 프라임사업 워크숍, 프라임사업 소통위원회(소통위)가 개최되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1월 19일 열린 프라임사업 워크숍은 사업의 추진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후 4차례에 걸친 소통위가 개최됐다. 제1, 2차 소통위에서는 ‘신설된 융·복합학과에 대한 논의’가, 3차 소통위에서는 ‘각 학과별 인원 감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제4차 소통위는 양 캠퍼스에서 각각 열렸다. 서울캠 소통위에선 정원감축에 대한 문제제기와 신설 학과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과대학 성

준택(사학) 부학장은 “문과대학 소속 교수들 중 대다수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이 자리에서 인원 감축에 대한 내용을 처음 접했다”고 밝혀 대학본부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미정원 신상협(국제학) 원장은 “학장님들에게 소속 교수 대상으로 설명과 설득 작업을 부탁했다”고 전했다. 다음날 국제캠에서 열린 제4차 소통위 역시 대학본부 측에서 제시한 정원 감축 안과 신설 학과의 편제가 논란이 됐다. 외대 민관동(중국어학) 학장은 “외대는 지금도 인원 부족으로 폐과되는 전공과목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정보대학 이수열(생체의공학) 학장은 “신설될 이공계열 학과를 서울캠에 배치하는 것은 이원화 캠퍼스 인식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프라임사업 계획서 제출을 10일 앞둔 지난 21일에 개최된 총장 주재 워크숍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국제캠 총학과 대학본부가 캠퍼스 이원화 문제를 놓고 공방이 있었다. 특히 일부 서울캠 단과대학장들은 부주의한 언행으로 참석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조인원 총장은 앞서 거론된 캠퍼스 간 문제에 대해 “풀어가야 할 문제이고, 풀여갈 수 있으니, TF 형태도 좋고, 위원회의 형태도 좋다”며 “미정원 보다는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 총학, 자치회비 감사시스템 확대 ...

## 자치회비를 둘러싼 논란

최병현 기자 chbh1027@khu.ac.kr  
최재원 기자 jankin1997@khu.ac.kr

지난 달 불거졌던 체육대학(체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논란은 체대 학생회의 ‘자치회비 운용’에 대한 의혹으로 번져나갔다. 이후 재학생 대표를 자청한 김태우(체육학 2015) 군은 ‘자치회비 예·결산 투명 공개’를 주장했고, 체대 학생회 측에서 이를 수용하며 사건이 일단락된 바 있다. 이후 지난 15일 체대 학생회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결산과 증빙자료를 온·오프라인에 공개하면서 향후 깨끗하게 예산을 운용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은 체대 학생회였지만, 자치회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제란 비단 특정 단과대학(단과대)에 국한된 사안만은 아니다.

자치회비 문제를 바라보는 일반 학생들의 시선은 ‘의구심’이다. 학생 일반에게 다가오는 자치회비 문제란 대체로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강압적인 납부 요구’의 측면이 강한 탓이다. 몇몇 소수의 학생들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때면 거의 언제나 학생회 측의 ‘항상 그래왔으니 괜찮다’는 식의 답변과 대면하게 된다. 관점에 따라서는 학생회 측의 안일함이 문제를 키우는 단초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신문은 자치회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기사를 준비했다. 자치회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짚어보고, ‘자치회비 문제’와 관련된 관리 시스템 몇 가지를 조명해본다.

### 모든 학생은 총학생회 회원

### 회비납부의 책임이 따르는 셈

총학생회(총학)의 회원은 누구인가? 총학 회칙 제1장 5조에 따르면 ‘본 회의 정회원은 경희대의 모든 재학생’으로, 그리고 ‘휴학생은 준회원’으로 규정하며 이들이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동 회칙 제2장 11조에서는 이들 정, 준회원이 ‘본 회의 운영전반에 관해 알 권리와 모든 자치활동에 참가할 권리’와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갖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제2장 12조에서는 ‘회칙준수 및 사업진행의 책임’과 ‘회비납부의 책임’ 등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요컨대, 경희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



지난해 9월 열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자치회비 분배율을 심의했다. 이날 참석한 77명 중 62명의 찬성으로 자치회비 회계감사의 단계적 확대시행이 결의됐다.

**감사의 대상이 관례적으로 총학생회에 한정돼 왔고, 그마저도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야 진행되다보니 감사 결과에 따른 피드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적은 인력이 한 해 동안의 회비 사용내역을 한꺼번에 검토하다보니 효율성 또한 높지 않았다.**

이라면 모든 사람이 총학의 회원인 셈이다. 그런데, 총학은 ‘학교 본부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자치기구’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 본부의 재정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필요가 있다. 회칙 제2장 12조에서 ‘회비납부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경희대의 모든 재학생이 총학의 정회원’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결국 ‘재학생 모두에게 회비납부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치회비는 등록금에 포함된 형식으로 매학기 시작 전에 납부하도록 등록금고지서를 통해 함께 고지된다. 그런데 등록금에 포함되는 입학금과 수업료는 반드시 내야하지만, 의료회비나 자치회비는 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했듯 자치회비는 회원의 책임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학기 초에 납부된 자치회비는 몇 차례의 논의를 거친 후 총학생회, 특별기구, 각 단과대학 학생회에 분배된다. 가장 먼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자치회비 분배율을 심의, 의결한다. 이후 회칙 제52조 1항(‘본 회의 회비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하여 전학대회에서 심의, 의결한다’)에 의거하여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가 총학생회와 7개 특별기구의 전년도 결산내역 및 당해년도 사업계

획서, 예산안 등을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자치회비 분배율을 확정하게 된다.

자치회비를 받는 기구의 예·결산 심의에 관한 부분도 회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총학 회칙 제6장 33조 5항의12가 바로 그 부분으로, ‘본 회에서 자치회비를 받는 기구의 예·결산을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있다. 지난 21일에, 제1차 확운위에서 제기된 건의가 바로 이와 관련된 부분이다. ‘단과대학 또한 자치회비를 받는 기구이므로 예·결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건의였고, 이는 과반수가 찬성해 의결됐다.

### ‘자치회비를 분배받는 기구 전체’를 결산과 감사의 대상으로

이러한 자치회비는 그간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받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요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캠퍼스(서울캠) 제47대 총학생회는 “이제는 자치회비를 단순히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학생들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치회비 회계감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입장으로부터 출발한 서울캠 제47대

총학의 ‘회계감사 확대시행’ 계획은 기존에 시행되던 회계감사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총학 회칙 제9장 55조 3항, ‘전반적인 감사는 매년 진행되는 학우참여형 회계감사시스템을 통해 실시한다’라는 대목은 자치회비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해 매우 대략적이고 두루뭉술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실적으로는 감사의 대상이 관례적으로 총학생회에 한정돼왔고, 그마저도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야 진행되다 보니 감사 결과에 따른 피드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적은 인력이 한 해 동안의 회비 사용내역을 한꺼번에 검토하다 보니 효율성 또한 높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서울캠 총학은 특별기구와 단과대 학생회, 학부 혹은 학과 학생회에도 해당 회칙을 적용시켜 공식적인 회계감사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1년에 총 4번 감사를 진행하는 ‘회계감사 확대시행’ 계획을 세우기에 이른다. 이후 서울캠 총학은 회칙 9장 52조에 5항을 신설해 ‘자치회비를 분배받는 기구 전체’를 결산과 감사의 대상으로 삼자는 내용을 발의하려 했지만, 작년 10월 29일에 열린 예정이었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성원 미달로 무산됨에 따라 이 회칙 개정 논의 또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KYUNG HEE UNIVERSITY

## Global Collaborative 2016 Summer Program

“국내외 석학 및 국제기구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세계 여러나라 학생들과의 교류의 장을 경험하세요!!”

- 프로그램 기간
- 개설강의
- 참여대상
- 신청기간
- 장학금
- 문의

2016.07.04~2016.07.29, [4주간]

“Humanity, Civi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에 특화된 20개 강의(GC홈페이지 참조)

국내외 대학(원)생

2016.03.14~2015.04.30(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경희대학생의 경우 미래문명원 네오르네상스장학 신청 가능(추후 공지예정)

미래문명원 Tel: 02-961-0995 Email: summer@khu.ac.kr 홈페이지: http://ga.fc.khu.ac.kr/gep 페이스북: www.facebook.com/khugc





# 경영대 학생회, 법인단체 등록도 눈길



회칙 개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전체에게 강제할 순 없게 됐으나, 서울캠 총학은 이후 특별자치기구와 단과대 학생회, 학부와 학과 학생회 등의 학생자치기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회계감사를 시범 운영했다. 총학생회를 포함해 총 18개의 단위가 신청대상이 되었고, 이중 4개의 특별자치기구와 7개 단과대 학생회, 그리고 6개의 학과 학생회가 회계감사를 신청했다. 신청한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감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2명의 학생을 포함한 총 8명의 재학생 자원자가 감사단을 꾸려 진행했다. 이 감사단은 각 학생자치단체의 연간 자치회비 결산내역에 대한 검토와 피드백을 해줬음은 물론이고, 그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학생회와 함께 ‘회계감사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감사 결과, ‘2015년 회계감사’를 신청한 17개 학생자치단체 모두 기본적인 사용내역을 누락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좋은 평을 받았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과 같이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을 제대로 수취하거나 올바르게 보관하지 않아 이 점에서 수차례 지적을 받았다. 또 타인 명의의 카드로 먼저 계산한 후 자치회비 통장에서 계좌이체 하는 방식의 거래내역이 심심찮게 발견되어, ‘절대로 이런 식으로 거래해선

지난해 10월 우리신문에서 서울캠퍼스에 소속된 13개 단과대 학생회를 대상으로 자치회비 결산내역의 공시방식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시 방식과 그 시기가 제각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매달 주기적으로 결산내역을 공시하는 단과대는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이 학기말이나 특별히 주기를 정해놓지는 않은 실정이었다.

안 된다’는 감사단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후 총학생회 측은 제작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자치회비 결산 표준 지침’을 비롯한 각종 양식샘플과 작성예시 등을 정리해서 서울캠 총학생회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다. ‘2015 회계감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자치기구에서도 이를 참고해 향후 회비 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첫 회계 감사였던지라 많은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이 도출됐지만, 이전까지는 각 학생자치기구나름의 기준에 의거해 ‘재량껏’ 자치회비를 관리해왔던 것에 비하면 자치회비 운영에 대한 시스템적인 관리가 최초로 이뤄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치회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 학생자치기구의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제14대 경영대학 학생회 ‘더함’의 색다른 시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4일, 경영대학 페이지에는 ‘세무서 공식절차를 밟아, 경영대학 학생회를 비영리단체로 등록할 예정’이라는 공지사항이 올라온 바 있다. 비영리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다. 경영대학 학생회가 비영리단체 등록을 시도하는 이유는 보다 투명한 회계 절차를 위해 법인통장과 법인가드를 개설하기 위함이다. 비영리단체로 등록

된 단체는 ‘등록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단체등록증’과 ‘법인통장과 법인카드 개설이 가능’하다. 경영대학 최상현(경영학 2012) 회장은 “개설될 법인통장의 명의로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학생회’로 지정할 것”이라며 “이를 차기 학생회에 대대로 물려주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자치회비 납부 확인과 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 회계 투명성 높이려는 노력 증가 사용 내역의 타당성 검증은 ‘아직’

비영리단체 등록을 위해서는 단체정관, 회의록 등의 제반서류를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현 경영대학 학생회 이전까지 학생회칙이 따로 없었다. 이에 경영대학 학생회 측은 올 3월 초에 학생회칙을 제정해 이를 공식 홈페이지에 올렸다. 최 회장은 “현재 학생회칙을 작성해 공개한 상태”라며 “지침서류가 준비되는대로 법인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살펴봤듯, ‘등록금고지서에 포함되어 고지되는 자치회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학생회 자구적 노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는,

‘소속된 학부나 학과 학생회에 직접 납부하는 자치회비’의 존재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진 바가 없다.

‘소속된 학부나 학과 학생회에 직접 납부하는 자치회비’는 통상적으로 입학 직후, 총 8학기(4년) 분의 학생 회비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 학기 분의 금액을 상정한 후 이것의 8배를 신입생들로부터 한꺼번에 납입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전과, 자퇴, 퇴학 등의 이유로 여덟 학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는 맹점은 차치하더라도, 각 학부 또는 학과마다 상이한 금액 책정 기준이 심지어 명확하게 공개되지도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학생 자치기구가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르는 신입생들에게 무려 8학기 분의 학생회비를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신입생들이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오해나 의혹, 혹은 부당함을 느끼며 학생자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는 점 역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렇게 걸린 자치회비의 사용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문제다. 지난해 10월 우리신문에서 서울캠퍼스에 소속된 13개 단과대 학생회를 대상으로 자치회비 결산내역의 공시방식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는 한 군데도 빠짐없이 자치회비 결산내역을 공개하고 있었으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단과대별로 이를 공시하는 방식과 그 시기가 제각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매달 대표자 회의에서 이를 발표하고 이후 회의록이나 결산내역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모범적인 단과대가 있는가 하면, 학생이 학생회실에 직접 찾아가 요청해야만 열람이 가능한 단과대도 있었다. 매달 주기적으로 결산내역을 공시하는 단과대는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이 학기말이나 특별히 주기를 정해놓지는 않은 실정이었다.

결국, 자치회비의 모호한 내역산정과 강제적인 납입요구, 불투명한 결산내역 공시 등으로 인해 학생회의 ‘자치회비’에 대한 학생 일반의 인식이 점차 부정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 덕분에 자치회비 납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다시 이 때문에 강제적인 납입요구가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생겨나게 되는 셈이다.

각 단과대 회칙을 정비하고 구성원에게 자치회비와 관련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는, 작금의 ‘자치회비에 대한 학생 일반의 부정적 인식’이 학생회의 경제적 측면을 넘어 존치의 측면을 뒤흔드는 요소로까지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3월 다섯째 주(03.28~04.01)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 캠퍼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접)

행사명	모집부문	일시	장소
한화호텔앤드리조트/FC 채용면담	회계, 경영기획, FS영업, 식품구매	3.29(화)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글로벌이노비그룹 (고속, 타이머, 간설, DT, 세이버, 에어서울) 채용설명회	-	3.30(수) 14:00~16:00	청운관 B117호
KOTRA 일본기업취업설명회	-	3.30(수) 10:00~12: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메이카스트 면접스타일링 특강	-	3.30(수) 17:00~19: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글로벌이노비그룹 (고속, 타이머, 간설, DT, 세이버, 에어서울) 채용면담	-	3.30(수) 16:00~18:00	청운관 1층 상담실
현대글로벌비즈 채용면담	채용연계형 인턴	4.1(금) 14:00~16: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 경희대학교 재(准)학생 및 졸업생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 가능(시작 시간 5분전까지 참석)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다를 참고해 주십시오.
- 채용설명회 관련 출석협조진 발급 :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배부

● 취업특강

특강제목	일시	장소
금융권 취업상담	3.30(수) 17:00~18:00	청운관 1층 취진처 회의실
창업의 이해	3.31(목) 13:00~15:00	청운관 B117호

● 취업진로지도 맞춤 컨설팅 (취업상담)

- 대상 :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 상세 내용

상담유형	컨설턴트	일시	장소	신청방법
개인 상담	분야별 컨설턴트 4명	월~금 (각 컨설턴트별 일정 상이함)	오비스홀 354호~356호 재법과대학 107-2호취업진로지원처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상담, 메뉴에서 신청 (컨설턴트별 일정,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신청)
집단 상담	-	-	-	-

- 상담 신청자 의무사항 : 취업준비도 검사 참여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담 전, 후 각 1회(총 2회) 참여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날 취소 불가 (상담 당일 전날까지만 가능, 취소시 전화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프린트해서 지참(필수)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1.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r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상담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상담실입니다.  
벗꽃이 피어나는 이 봄, 행복한 대학생활하고 계신가요?

학교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 친구들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하고 싶은 친구들  
자신을 좀 더 이해하길 원하는 친구들

언제든 학생생활상담실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나요?

1. 자신을 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2.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지지를 받습니다.

비밀 보장되나요?

검사해석 및 개인상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은, 비밀 보장을 가장 우선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1) 진로 및 학습검사  
Holland 적성탐색검사  
능력, 적성, 성격 및 가치관을 고려한 나의 진로와 직업 알아보기  
언제? 나의 진로 및 적성이 궁금할 때 알아보는 검사  
U&I 진로탐색검사  
진로 및 흥미분야와 자신의 성격간격 일치성을 알아보기  
언제? 진로흥미와 자기성향이 맞지 않아 진로선택이 고민될 때  
U&I 학습유형검사  
학습과 관련된 성격, 행동유형을 토대로 자신의 학습유형 파악하기

언제? 공부방법에 대한 이해부족 및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때

2) 심리 및 성격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MMP]-2  
자신의 행동 및 성격특성과 적응 정도에 대한 이해를 도움  
언제? 나의 현재 심리상태가 궁금할 때 (우울, 불안 등)  
기질 및 성격검사 [TCI]  
자신의 기질과 성격을 평가하여 나의 성격과 감정, 대인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도움  
언제? 자기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  
성격유형검사 [MBTI]  
자신의 심리적 경향성을 알고 성격의 장·단점을 알아봄  
언제?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이해하고 싶을 때

상담받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내 문제를 직면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앞에서 힘이 돼 준 선생님과 진솔한 관계를 맺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는 좀 더 나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잘 알아차리고 존중해줘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었고 자신에게 불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상담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시 간 : 오후 9시~ 오후 17시까지(점심시간 12~13시)  
장 소 : 학생회관 218호 학생생활상담실  
연락처 : 031) 201-2906  
이메일 : councse@khu.ac.kr  
예약방법 : 전화나 메일, 직접방문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학생생활상담팀



보도

# 후마 ‘함께 후마’, 선본 당선 ... 정경대학 후보자 없어 또 연기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생위원회〉

## 학내 보궐선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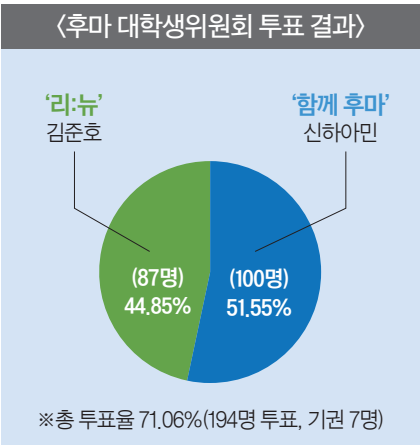
유정아 기자 yuangela@khu.ac.kr

#. 3월은 지난해 말 당선된 학생회와 학생 자치기구가 개강과 함께 학생과 마주하는 시기다. 하지만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생위원회는 이제 갓 당선자를 확정했고, 정경대학은 여전히 선거조차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라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해당 기구들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학내에 진행되고 있는 보궐선거 동향과 지금까지의 결과를 짚어본다.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대학생위원회의 경우, 재임 중이던 황선경(정치외교학 2011) 전 위원장(제6기)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작년 11월부터 대표자 부재 상황이었다. 급기야 작년 12월 진행되었던 제7기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도 후보자 등록 마감 당일 후마 대학생위원회에 가입, 출마했던 안명진(사회학 2014) 군이 후보자 등록을 포기하는 바람에 선거 자체가 후보자 미등록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후마 대학생위원회는 12월 9일 개최된 총회에서 김별님(아동가족학 2012) 위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으로는 김준호(정치외교학 2013), 안명진(사회학 2014), 이정이(아동가족학 2012) 위원을 선정하며 임시체제에 돌입했다.

## 후마 대학생위원회 약 4개월 만에 제7기 위원장 당선

비상대책위원회는 제7기 위원장 보궐선거를 위해 9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구성했다. 후마 대학생위원회 내에서 지원자를 받아 무작위로 선발된 선관위는 김별님 선관위장과 이정이, 최혜경(아동가족학 2015), 민혁(경제학 2014), 최영범(정치외교학 2015) 선관위원 등으로 꾸려졌다. 그리고 선관위는 같은 날인 9일에 보궐선거 공고를 게재했고, 이후 16일 9시부터 18시까지 입후보자를 모집했다. <대학주보 온라인 - 후마 대학생위원회, 총회 전 신규 위원 가입 시기 놓고 내부 갈등> 그 결과, 제7기 위원장 보궐선거에 ‘함께 후마’ 선본의 신하아민(국어국문학 2010) 위원과 ‘리:뉴’ 선본의 김준호(정치외교학 2013) 위원이 입후보했고, 16일 저녁 1차 물미팅에서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이어 22일



① 지난 8일 청운관 712호에서 후마 대학생위원회의 2016학년도 1학기 위원 총회에서 ‘후마 대학생위원회 회칙 개정’과 ‘제 7기 후마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선거 일정’을 논의했다.

② 현재 정경대학 학생회장직은 공석으로, 강주리(경제학 2014) 경제학과 학생회장이 정경대학 학생회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다. 강 권한대행인은 “정경대학과 경제학과 모두를 신경 쓰다보니 무리가 있다”며 “현재 권한 대행업무는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며 현상 유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 6시에 열렸던 2차 물미팅에서는 선거 경비로 지급된 50만원의 사용 내역 검토와 개표 일정을 25일 11시에서 24일 18시로 수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후마 대학생위원회 선거 운동은 3월 17일 8시부터 22일 18시까지 진행됐으며, 투표는 후마 대학생위원회 정회원 273명을 대상(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지난 23일 8시 30분부터 24일 18시까지 모바일 투표로 시행했다. 투표 마감 직후 진행된 개표 결과, 총 투표율 71.06%(194명 투표, 기권 7명) 중 51.55%(100명)의 득표율로 ‘함께후마’ 선본의 신하아민 후보가 당선됐다. 신 당선자는 “4년 전 시민교육에서 사전의 정의를 바꿨던 일을 기억한다”며 “그것처럼 절대 변하지 않으리라 생각되는 일들을 변화시키는 후마 대학생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당선자의 주요 공약이었던 시간강사 처우문제를 알리고, 연대를 형성하겠다는 ‘선생님, 함께 가요!’와 총회 운영 관련 회칙을 제정하겠다는 ‘민주주의’ 항목 등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경대학 학생회의 경우, 지난 14

일부터 이틀 간 제48대 정경대학 학생회장 후보자 등록을 진행했으나 입후보 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제48대 정경대학 학생회장 선거는 지난해 카카오톡으로 투표기간 연장 횡수에 관한 세칙을 개정한 문제에 대해 절차의 부적절성이 지적되면서 정책투표를 시행하여 ‘크레센도’선본의 당선을 무효로 한 바 있다.

그런데 정경대학 학생회장 보궐선거는 제48대 선관위가 정책투표 결과에 따라 유예를 선언한지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5월로 미뤄질 예정이다. ‘5월’이라는 선거시점에 대해, 정경대운영위원회 측은 “입후보하려는 학우들에게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해 다소 긴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며 “3주 가량의 선거기간이 중간고사와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 정경대학 제48대 학생회장 선거 또 다시 5월로 미뤄져

현재 정경대학 학생회장직은 공석이며, 강주리(경제학 2014) 경제학과 학생회장이 지난 2월에 열린 정경대학 학생대표자회의의 동의를 근거로 정경대학 학생회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회장 자리가 공석인 기간이 길어지면서, 비대위원장의 겸직으로 인한 업무 과중, 정경대 자치사업 진행의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권한대행인은 “정경대학과 경제학과 모두를 신경 쓰다 보니 무리가 있다”며 “현재 권한 대행업무는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며 현상유지에 그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권한대행인이 선출한 해당 집행국은 학생회장 당선 이후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집행국원 모집도 곤란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학생회 업무 부담이 오롯이 강 대행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본래 3월에 학생회장을 선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타 대학과 달리 정경대학에는 연간 학생자치활동 계획이 전무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강 대행인은 이에 대해 “자치회비가 3월 선거로 당선된 학생회의 사업에 쓰이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해 사업진행을 꺼려왔다”며 “선거가 재차 유예된 이후 자치사업 진행에 대해 고민 중에 있다”고 답했다. 정경대학 학생회장 선거가 또 다시 유예되면서 앞으로도 이같은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6-1학기 KHU 사회진출 지원 프로그램 안내

### KHU 사회진출지원 5 Steps

진출분야

1 Step  
1학년

2 Step  
1~2학년

3 Step  
1~4학년

4 Step  
3학년

5 Step  
4학년

취업

신입생 세미나

입업교수제

취업소셜

인턴십

입사지원

진학

신입생 세미나

입업교수제

석박사연계프로그램

대학원 준비

대학원 입시

프로그래밍

신입생 세미나

입업교수제

한정활동(NGO, NPO, 창작활동)

한정활동(창업)

한정활동

교사·공무형

신입생 세미나

입업교수제

교사반 입턴

공시준비

공시준비

창업

신입생 세미나

입업교수제

창업소셜

한정활동(창업)

창업실용

내용

· 실업과 진로  
· 사회적 기업  
· 취업준비  
· 진로특성화  
· 진로설계  
· 개인 비전 만들기

· 진로구체화  
· 진로상담  
· 진로·진기 등  
· 진로분야구분

· 진출분야별 전문교육  
· 진로·진기 등  
· 진로분야구분

· 분야별 한정활동  
· 분야별 인턴십  
· 분야별 특강(멘토)

· 취업소셜  
· 진로·진기 등  
· 진로분야구분

담당부서  
(문의)

후마니타스칼리지  
취업진로지원처

단과대학 / 전공  
취업지도교수

취업진로지원처  
취업보육센터  
교사반

단과대학  
취업진로지원처

단과대학  
취업진로지원처

1 STEP  
신입생 세미나

신입생 세미나, 1학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7학기, 8학기, 9학기, 10학기, 11학기, 12학기, 13학기, 14학기, 15학기, 16학기, 17학기, 18학기, 19학기, 20학기, 21학기, 22학기, 23학기, 24학기, 25학기, 26학기, 27학기, 28학기, 29학기, 30학기, 31학기, 32학기, 33학기, 34학기, 35학기, 36학기, 37학기, 38학기, 39학기, 40학기, 41학기, 42학기, 43학기, 44학기, 45학기, 46학기, 47학기, 48학기, 49학기, 50학기, 51학기, 52학기, 53학기, 54학기, 55학기, 56학기, 57학기, 58학기, 59학기, 60학기, 61학기, 62학기, 63학기, 64학기, 65학기, 66학기, 67학기, 68학기, 69학기, 70학기, 71학기, 72학기, 73학기, 74학기, 75학기, 76학기, 77학기, 78학기, 79학기, 80학기, 81학기, 82학기, 83학기, 84학기, 85학기, 86학기, 87학기, 88학기, 89학기, 90학기, 91학기, 92학기, 93학기, 94학기, 95학기, 96학기, 97학기, 98학기, 99학기, 100학기, 101학기, 102학기, 103학기, 104학기, 105학기, 106학기, 107학기, 108학기, 109학기, 110학기, 111학기, 112학기, 113학기, 114학기, 115학기, 116학기, 117학기, 118학기, 119학기, 120학기, 121학기, 122학기, 123학기, 124학기, 125학기, 126학기, 127학기, 128학기, 129학기, 130학기, 131학기, 132학기, 133학기, 134학기, 135학기, 136학기, 137학기, 138학기, 139학기, 140학기, 141학기, 142학기, 143학기, 144학기, 145학기, 146학기, 147학기, 148학기, 149학기, 150학기, 151학기, 152학기, 153학기, 154학기, 155학기, 156학기, 157학기, 158학기, 159학기, 160학기, 161학기, 162학기, 163학기, 164학기, 165학기, 166학기, 167학기, 168학기, 169학기, 170학기, 171학기, 172학기, 173학기, 174학기, 175학기, 176학기, 177학기, 178학기, 179학기, 180학기, 181학기, 182학기, 183학기, 184학기, 185학기, 186학기, 187학기, 188학기, 189학기, 190학기, 191학기, 192학기, 193학기, 194학기, 195학기, 196학기, 197학기, 198학기, 199학기, 200학기, 201학기, 202학기, 203학기, 204학기, 205학기, 206학기, 207학기, 208학기, 209학기, 210학기, 211학기, 212학기, 213학기, 214학기, 215학기, 216학기, 217학기, 218학기, 219학기, 220학기, 221학기, 222학기, 223학기, 224학기, 225학기, 226학기, 227학기, 228학기, 229학기, 230학기, 231학기, 232학기, 233학기, 234학기, 235학기, 236학기, 237학기, 238학기, 239학기, 240학기, 241학기, 242학기, 243학기, 244학기, 245학기, 246학기, 247학기, 248학기, 249학기, 250학기, 251학기, 252학기, 253학기, 254학기, 255학기, 256학기, 257학기, 258학기, 259학기, 260학기, 261학기, 262학기, 263학기, 264학기, 265학기, 266학기, 267학기, 268학기, 269학기, 270학기, 271학기, 272학기, 273학기, 274학기, 275학기, 276학기, 277학기, 278학기, 279학기, 280학기, 281학기, 282학기, 283학기, 284학기, 285학기, 286학기, 287학기, 288학기, 289학기, 290학기, 291학기, 292학기, 293학기, 294학기, 295학기, 296학기, 297학기, 298학기, 299학기, 300학기, 301학기, 302학기, 303학기, 304학기, 305학기, 306학기, 307학기, 308학기, 309학기, 310학기, 311학기, 312학기, 313학기, 314학기, 315학기, 316학기, 317학기, 318학기, 319학기, 320학기, 321학기, 322학기, 323학기, 324학기, 325학기, 326학기, 327학기, 328학기, 329학기, 330학기, 331학기, 332학기, 333학기, 334학기, 335학기, 336학기, 337학기, 338학기, 339학기, 340학기, 341학기, 342학기, 343학기, 344학기, 345학기, 346학기, 347학기, 348학기, 349학기, 350학기, 351학기, 352학기, 353학기, 354학기, 355학기, 356학기, 357학기, 358학기, 359학기, 360학기, 361학기, 362학기, 363학기, 364학기, 365학기, 366학기, 367학기, 368학기, 369학기, 370학기, 371학기, 372학기, 373학기, 374학기, 375학기, 376학기, 377학기, 378학기, 379학기, 380학기, 381학기, 382학기, 383학기, 384학기, 385학기, 386학기, 387학기, 388학기, 389학기, 390학기, 391학기, 392학기, 393학기, 394학기, 395학기, 396학기, 397학기, 398학기, 399학기, 400학기, 401학기, 402학기, 403학기, 404학기, 405학기, 406학기, 407학기, 408학기, 409학기, 410학기, 411학기, 412학기, 413학기, 414학기, 415학기, 416학기, 417학기, 418학기, 419학기, 420학기, 421학기, 422학기, 423학기, 424학기, 425학기, 426학기, 427학기, 428학기, 429학기, 430학기, 431학기, 432학기, 433학기, 434학기, 435학기, 436학기, 437학기, 438학기, 439학기, 440학기, 441학기, 442학기, 443학기, 444학기, 445학기, 446학기, 447학기, 448학기, 449학기, 450학기, 451학기, 452학기, 453학기, 454학기, 455학기, 456학기, 457학기, 458학기, 459학기, 460학기, 461학기, 462학기, 463학기, 464학기, 465학기, 466학기, 467학기, 468학기, 469학기, 470학기, 471학기, 472학기, 473학기, 474학기, 475학기, 476학기, 477학기, 478학기, 479학기, 480학기, 481학기, 482학기, 483학기, 484학기, 485학기, 486학기, 487학기, 488학기, 489학기, 490학기, 491학기, 492학기, 493학기, 494학기, 495학기, 496학기, 497학기, 498학기, 499학기, 500학기, 501학기, 502학기, 503학기, 504학기, 505학기, 506학기, 507학기, 508학기, 509학기, 510학기, 511학기, 512학기, 513학기, 514학기, 515학기, 516학기, 517학기, 518학기, 519학기, 520학기, 521학기, 522학기, 523학기, 524학기, 525학기, 526학기, 527학기, 528학기, 529학기, 530학기, 531학기, 532학기, 533학기, 534학기, 535학기, 536학기, 537학기, 538학기, 539학기, 540학기, 541학기, 542학기, 543학기, 544학기, 545학기, 546학기, 547학기, 548학기, 549학기, 550학기, 551학기, 552학기, 553학기, 554학기, 555학기, 556학기, 557학기, 558학기, 559학기, 560학기, 561학기, 562학기, 563학기, 564학기, 565학기, 566학기, 567학기, 568학기, 569학기, 570학기, 571학기, 572학기, 573학기, 574학기, 575학기, 576학기, 577학기, 578학기, 579학기, 580학기, 581학기, 582학기, 583학기, 584학기, 585학기, 586학기, 587학기, 588학기, 589학기, 590학기, 591학기, 592학기, 593학기, 594학기, 595학기, 596학기, 597학기, 598학기, 599학기, 600학기, 601학기, 602학기, 603학기, 604학기, 605학기, 606학기, 607학기, 608학기, 609학기, 610학기, 611학기, 612학기, 613학기, 614학기, 615학기, 616학기, 617학기, 618학기, 619학기, 620학기, 621학기, 622학기, 623학기, 624학기, 625학기, 626학기, 627학기, 628학기, 629학기, 630학기, 631학기, 632학기, 633학기, 634학기, 635학기, 636학기, 637학기, 638학기, 639학기, 640학기, 641학기, 642학기, 643학기, 644학기, 645학기, 646학기, 647학기, 648학기, 649학기, 650학기, 651학기, 652학기, 653학기, 654학기, 655학기, 656학기, 657학기, 658학기, 659학기, 660학기, 661학기, 662학기, 663학기, 664학기, 665학기, 666학기, 667학기, 668학기, 669학기, 670학기, 671학기, 672학기, 673학기, 674학기, 675학기, 676학기, 677학기, 678학기, 679학기, 680학기, 681학기, 682학기, 683학기, 684학기, 685학기, 686학기, 687학기, 688학기, 689학기, 690학기, 691학기, 692학기, 693학기, 694학기, 695학기, 696학기, 697학기, 698학기, 699학기, 700학기, 701학기, 702학기, 703학기, 704학기, 705학기, 706학기, 707학기, 708학기, 709학기, 710학기, 711학기, 712학기, 713학기, 714학기, 715학기, 716학기, 717학기, 718학기, 719학기, 720학기, 721학기, 722학기, 723학기, 724학기, 725학기, 726학기, 727학기, 728학기, 729학기, 730학기, 731학기, 732학기, 733학기, 734학기, 735학기, 736학기, 737학기, 738학기, 739학기, 740학기, 741학기, 742학기, 743학기, 744학기, 745학기, 746학기, 747학기, 748학기, 749학기, 750학기, 751학기, 752학기, 753학기, 754학기, 755학기, 756학기, 757학기, 758학기, 759학기, 760학기, 761학기, 762학기, 763학기, 764학기, 765학기, 766학기, 767학기, 768학기, 769학기, 770학기, 771학기, 772학기, 773학기, 774학기, 775학기, 776학기, 777학기, 778학기, 779학기, 780학기, 781학기, 782학기, 783학기, 784학기, 785학기, 786학기, 787학기, 788학기, 789학기, 790학기, 791학기, 792학기, 793학기, 794학기, 795학기, 796학기, 797학기, 798학기, 799학기, 800학기, 801학기, 802학기, 803학기, 804학기, 805학기, 806학기, 807학기, 808학기, 809학기, 810학기, 811학기, 812학기, 813학기, 814학기, 815학기, 816학기, 817학기, 818학기, 819학기, 820학기, 821학기, 822학기, 823학기, 824학기, 825학기, 826학기, 827학기, 828학기, 829학기, 830학기, 831학기, 832학기, 833학기, 834학기, 835학기, 836학기, 837학기, 838학기, 839학기, 840학기, 841학기, 842학기, 843학기, 844학기, 845학기, 846학기, 847학기, 848학기, 849학기, 850학기, 851학기, 852학기, 853학기, 854학기, 855학기, 856학기, 857학기, 858학기, 859학기, 860학기, 861학기, 862학기, 863학기, 864학기, 865학기, 866학기, 867학기, 868학기, 869학기, 870학기, 871학기, 872학기, 873학기, 874학기, 875학기, 876학기, 877학기, 878학기, 879학기, 880학기, 881학기, 882학기, 883학기, 884학기, 885학기, 886학기, 887학기, 888학기, 889학기, 890학기, 891학기, 892학기, 893학기, 894학기, 895학기, 896학기, 897학기, 898학기, 899학기, 900학기, 901학기, 902학기, 903학기, 904학기, 905학기, 906학기, 907학기, 908학기, 909학기, 910학기, 911학기, 912학기, 913학기, 914학기, 915학기, 916학기, 917학기, 918학기, 919학기, 920학기, 921학기, 922학기, 923학기, 924학기, 925학기, 926학기, 927학기, 928학기, 929학기, 930학기, 931학기, 932학기, 933학기, 934학기, 935학기, 936학기, 937학기, 938학기, 939학기, 940학기, 941학기, 942학기, 943학기, 944학기, 945학기, 946학기, 947학기, 948학기, 949학기, 950학기, 951학기, 952학기, 953학기, 954학기, 955학기, 956학기, 957학기, 958학기, 959학기, 960학기, 961학기, 962학기, 963학기, 964학기, 965학기, 966학기, 967학기, 968학기, 969학기, 970학기, 971학기, 972학기, 973학기, 974학기, 975학기, 976학기, 977학기, 978학기, 979학기, 980학기, 981학기, 982학기, 983학기, 984학기, 985학기, 986학기, 987학기, 988학기, 989학기, 990학기, 991학기, 992학기, 993학기, 994학기, 995학기, 996학기, 997학기, 998학기, 999학기, 1000학기, 1001학기, 1002학기, 1003학기, 1004학기, 1005학기, 1006학기, 1007학기, 1008학기, 1009학기, 1010학기, 1011학기, 1012학기, 1013학기, 1014학기, 1015학기, 1016학기, 1017학기, 1018학기, 1019학기, 1020학기, 1021학기, 1022학기, 1023학기, 1024학기, 1025학기, 1026학기, 1027학기, 1028학기, 1029학기, 1030학기, 1031학기, 1032학기, 1033학기, 1034학기, 1035학기, 1036학기, 1037학기, 1038학기, 1039학기, 1040학기, 1041학기, 1042학기, 1043학기, 1044학기, 1045학기, 1046학기, 1047학기, 1048학기, 1049학기, 1050학기, 1051학기, 1052학기, 1053학기, 1054학기, 1055학기, 1056학기, 1057학기, 1058학기, 1059학기, 1060학기, 1061학기, 1062학기, 1063학기, 1064학기, 1065학기, 1066학기, 1067학기, 1068학기, 1069학기, 1070학기, 1071학기, 1072학기, 1073학기, 1074학기, 1075학기, 1076학기, 1077학기, 1078학기, 1079학기, 1080학기, 1081학기, 1082학기, 1083학기, 1084학기, 1085학기, 1086학기, 1087학기, 1088학기, 1089학기, 1090학기, 1091학기, 1092학기, 1093학기, 1094학기, 1095학기, 1096학기, 1097학기, 1098학기, 1099학기, 1100학기, 1101학기, 1102학기, 1103학기, 1104학기, 1105학기, 1106학기, 1107학기, 1108학기, 1109학기, 1110학기, 1111학기, 1112학기, 1113학기, 1114학기, 1115학기, 1116학기, 1117학기, 1118학기, 1119학기, 1120학기, 1121학기, 1122학기, 1123학기, 1124학기, 1125학기, 1126학기, 1127학기, 1128학기, 1129학기, 1130학기, 1131학기, 1132학기, 1133학기, 1134학기, 1135학기, 1136학기, 1137학기, 1138학기, 1139학기, 1140학기, 1141학기, 1142학기, 1143학기, 1144학기, 1145학기, 1146학기, 1147학기, 1148학기, 1149학기, 1150학기, 1151학기, 1152학기, 1153학기, 1154학기, 1155학기, 1156학기, 1157학기, 1158학기, 1159학기, 1160학기, 1161학기, 1162학기, 1163학기, 1164학기, 1165학기, 1166학기, 1167학기, 1168학기, 1169학기, 1170학기, 1171학기, 1172학기, 1173학기, 1174학기, 1175학기, 1176학기, 1177학기, 1178학기, 1179학기, 1180학기, 1181학기, 1182학기, 1183학기, 1184학기, 1185학기, 1186학기, 1187학기, 1188학기, 1189학기, 1190학기, 1191학기, 1192학기, 1193학기, 1194학기, 1195학기, 1196학기, 1197학기, 1198학기, 1199학기, 1200학기, 1201학기, 1202학기, 1203학기, 1204학기, 1205학기, 1206학기, 1207학기, 1208학기, 1209학기, 1210학기, 1211학기, 1212학기, 1213학기, 1214학기, 1215학기, 1216학기, 1217학기, 1218학기, 1219학기, 1220학기, 1221학기, 1222학기, 1223학기, 1224학기, 1225학기, 1226학기, 1227학기, 1228학기, 1229학기, 1230학기, 1231학기, 1232학기, 1233학기, 1234학기, 1235학기, 1236학기, 1237학기, 1238학기, 1239학기, 1240학기, 1241학기, 1242학기, 1243학기, 1244학기, 1245학기, 1246학기, 1247학기, 1248학기, 1249학기, 1250학기, 1251학기, 1252학기, 1253학기, 1254학기, 1255학기, 1256학기, 1257학기, 1258학기, 1259학기, 1260학기, 1261학기, 1262학기, 1263학기, 1264학기, 1265학기, 1266학기, 1267학기, 1268학기, 1269학기, 1270학기, 1271학기, 1272학기, 1273학기, 1274학기, 1275학기, 1276학기, 1277학기, 1278학기, 1279학기, 1280학기, 1281학기, 1282학기, 1283학기, 1284학기, 1285학기, 1286학기, 1287학기, 1288학기, 1289학기, 1290학기, 1291학기, 1292학기, 1293학기, 1294학기, 1295학기, 1296학기, 1297학기, 1298학기, 1299학기, 1300학기, 1301학기, 1302학기, 1303학기, 1304학기, 1305학기, 1306학기, 1307학기, 1308학기, 1309학기, 1310학기, 1311학기, 1312학기, 1313학기, 1314학기, 1315학기, 1316학기, 1317학기, 1318학기, 1319학기, 1320학기, 1321학기, 1322학기, 1323학기, 1324학기, 1325학기, 1326학기, 1327학기, 1328학기, 1329학기, 1330학기, 1331학기, 1332학기, 1333학기, 1334학기, 1335학기, 1336학기, 1337학기, 1338학기, 1339학기, 1340학기, 1341학기, 1342학기, 1343학기, 1344학기, 1345학기, 1346학기, 1347학기, 1348학기, 1349학기, 1350학기, 1351학기, 1352학기, 1353학기, 1354학기, 1355학기, 1356학기, 1357학기, 1358학기, 1359학기, 1360학기, 1361학기, 1362학기, 1363학기, 1364학기, 1365학기, 1366학기, 1367학기, 1368학기, 1369학기, 1370학기, 1371학기, 1372학기, 1373학기, 1374학기, 1375학기, 1376학기, 1377학기, 1378학기, 1379학기, 1380학기, 1381학기, 1382학기, 1383학기, 1384학기, 1385학기, 1386학기, 1387학기, 1388학기, 1389학기, 1390학기, 1391학기, 1392학기, 1393학기, 1394학기, 1395학기, 1396학기, 1397학기, 1398학기, 1399학기, 1400학기, 1401학기, 1402학기, 1403학기, 1404학기, 1405학기, 1406학기, 1407학기, 1408학기, 1409학기, 1410학기, 1411학기, 1412학기, 1413학기, 1414학기, 1415학기, 1416학기, 14



# 그들에게 너의 미래를 맡기지 마라

## 전문가칼럼 - 선거

임형진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고대 민주정치의 본산인 그리스 아테네의 현인들은 민주주의를 ‘무식한 다수가 선택하는 매우 나쁜 정치체제’로 규정했다. 특히 플라톤에게 중우(衆愚)정치에 불과했던 민주주의는 ‘대중적 인기에 연연하고 그들의 요구에 무조건 부응하는 사회적 병리현상과 개인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는 그릇된 평등관 그리고 개인이 절제와 시민적 덕목을 경시하고 무절제와 방종으로 치달는 현상이 드러나는 정치체제’였다. 결국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현자를 못 알아보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오늘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택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 정부가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북한마저도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한다. 작금의 독재국가들마저 모두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이 도대체 민주주의의 장점이 무엇이었기에 혐오의 대상이었던 민주주의가 많은 나라들의 정치체제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인가 말이다.

국민 정치참여의 유일한 방법  
남은 것이 투표행위

BC 5세기의 민주주의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가진 정치체제였다. 첫째, 법 앞의 평등. 둘째, 국민의 정치 참여. 셋째, 공직자에 대한 통제가 그것이다. 2500여 년 전의 이론임에도 오늘날까지 그 근본 원칙은 큰 변화 없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 놀랍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이 시민들의 정치참여이다.

아테네 시민들에 있어서 정치참여는 시민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였다.

A hand is shown holding a light blue ballot paper. The paper has the word 'VOTE' in bold black letters at the top. Below it, there are two options: a checked box followed by 'YES' and an unchecked box followed by 'NO'. The background is a blurred image of a ballot box with other ballot papers visible inside.

무엇보다도 당시의 시민들은 의무적으로 국가에 1년씩은 반드시 봉사하는 평의원을 역임해야 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치면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 있는 평의원은 아테네 민주주의를 지탱시킨 원동력이었고 그들이 있었기에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가능했다.

오늘의 민주주의와 참여는 어떠한가. 솔직히 국민들의 정치참여는 매우 제한적이다.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직접민주주의는 간접민주주의가 된지는 오래다. 국민의 뜻을 대신해서 정치에 반영시켜 준다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정착되었고 국민은 점차 정치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언론과 NGO 등 역시 제한적이다. 결국 국민의 정치참여의 유일한 방법으로 남은 것이 바로 투표행위이다. 오직 투표만이 가장 확실하게 나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착된 것이 오늘의 민주주의의 현실이 되고 있다.

4월 13일 제 20대 국회의원을 투표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모든 언론이 나서서 연일 관련된 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교정 밖을 나서는 순간 자신들을 알리는 각 당 후보자들의 홍

보물이 눈앞에 펼쳐지고 그들의 인사가 넘쳐난다. 여야당 모두 공천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섰다. 공천결과를 놓고도 말들이 많다. '알파 박'과 '알파 김'이라는 여당의 주인과 야당의 임대 사장이 묻지마 공천을 강행했고 분노하는 지지자들은 아랑곳없이 여당심판론과 야당심판론을 들고 나와 정책대결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선진국, 선거연령 고등학생으로  
우리 대학생들의 선거의식 절박

여전히 자신이 국회의원 후보인지 아니면 지역 개발의 역군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후보들이나 국회의원은 국정을 감시하고 국가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직업이 아니라 선거 때 뿐이지만 맘대로 부릴 수 있는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는 국민들. 모두 최악의 한국 민주주의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도 낯짜는 다가온다. 어찌 되었던 선택은 하여야 한다. 우리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바로 투표이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에게 가장 절박한 정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가 분노로 변하고 있다. 그 분노가 투

표의 표기로 이어진다면 그것을 노리는 고도의 기획이 숨어져 있음을 지시해야 한다. 이른바 정치혐오증. 가장 순수하고 이성적인 대학생만큼 이 전략이 유용한 층도 없다. 정치를 혐오하게 해서 모두의 무관심을 유도하고 나면 결국은 그 혐오의 대상들만의 정치판이 짜인다. 대학생이 선거를 외면하는 사회, 한국 민주주의의 퇴보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고대 아테네에서처럼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를 10년 동안 해외로 유배를 보내는 도권추방제가 없는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최대 장점은 다수의 선택으로 그들을 선거에서 낙선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다수는 플라톤이 지적한 무식한 다수가 아니라 각성된 그리고 깨어있는 건강한 민주시민이다. 그 민주시민의 전위에는 늘 지성인이 있었다. 바로 지금의 대학생들이다. 선진국은 선거연령을 고등학교생으로 낮추는 판에 우리 대학생들의 바른 의식이 절박하다.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하고 누구나 자유로운 사회는 오직 투표로서만 가능하다. 자신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체이며 시대정신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다. 그들에게 결코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

▶1면에서 이어짐

사랑의 불가능성, 에로스의 종말은 이렇게 찾아온다. 우리는 흔히 자신과 공통점이 있는 사람, 자신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 사랑의 대상으로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가진 소유목록들에 비추어본 사랑, 내가 나를 갖고자 때 달리는 나르키소스적인 사랑일 뿐이다. 진정한 사랑은 내 존재를 혼란에 빠뜨리고 나의 자유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 한 마디로 의지와 행위의 주인이었던 나를 온전히 나에게로 위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오직 타자로부터만 온다.

타자의 얼굴은 그가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 이전까지 그는 하나의 사물이거나 잠재적인 증오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임을 포기하자, 그는 사회적인 옷들을 벗어던진 인간의 가장 솔직한 얼굴을 드러낸다. 때로 그 얼굴은 경멸과 경계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발가벗고 있는 가장 나약한



우리는 흔히 자신과 공통점이 있는 사람, 자신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 사랑의 대상으로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습이기도 하며, 또 때로는 오랜 시간 망각된 인간의 인간다움을 일깨워주는 가장 강력하고 위엄 있는 모습이기도 한다. 타자와 얼굴을 마주하기 위해 다가간다는 것은 그래서 이미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기 위해 내가 나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근대적인 개인을 포기하고 진정한 ‘주체’가 되라

고 했다. 주체(subject)란 우주 속에 홀로 서있는 자가 아니라 아래에서(sub-) 밀어 올려주는(-jection)는 자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인생은 외롭게 자신만을 반복하고 경험하기 위해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타자와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언어는 단순히 인간이 사회화되기 위해 습득해야 할 도구가 아니라 타자를 맞아들이고 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을 열어내는 창문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동사보다는 타동사가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자동사가 어떤 관계도 거부하고 나의 존재함만을 주장한다면, 타동사는 타자와 관계를 맺으려는 손 내밀기와 같다. 내가 손을 내미는 순간, 타자는 고독과 불안 속에 갇혀 있던 나를 탈출시키고 구원해준다. 타자를 향한 사람은 자기애에 사로잡혀 있던 나를 윤리적인 인간으로 변신하게 해준다. 인간이 동물이기를 멈추고 비로소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바로 타자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한다.

## 참여마당

양나라  
(국어국문학 2015)



## 새로움과 낯섦

서점을 떠올렸을 때 우리는 대개 비슷한 배경을 떠올리고, 비슷한 분위기를 느낀다. 서점을 가득 채운 수많은 책들, 오가는 많은 사람들, 책을 검색할 수 있도록 비치된 컴퓨터. 사방을 둘러싼 책들 사이에 있을 때의 왠지 모를 설렘과,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책 한 권을 사게 만드는 힘을 가진 곳, 그곳이 바로 서점이다. 이미지와 분위기가 압도적인 곳이 우리가 아는 서점이다. 우리는 학교 정문에서 몇 걸음만 걸어도 서점을 갈 수 있고, 지하철 몇 정거장만 지나면 대형 서점도 찾을 수 있다. 눈에 익은 풍경들이 반기는 일반적인 서점이다. 그런데 그런 익숙한 서점도 좋지 만, 조금은 낯설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분위기에 설렘 수 있는 서점을 가보는 건 어떨까. 이미 알고 있었던 것에서 약간은 비껴 선 조금은 다른 서점 말이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서점' 보다는 '책방'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리는 그 작은 책방들에서는 평소 우리가 찾던 큰 서점들에게선 받지 못했던 어떤 기분 좋은 느낌을 얻을 수 있다. 길을 따라 걷다 우연히 들여다 본 창문 너머로 어지럽게 정리되어있는 책들, 조용히 책을 읽으며 커피를 한 잔 하는 사람 두어 명, 장르별로 책이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 검색을 위한 컴퓨터가 놓여 있지도 않은, 오래된 듯 또 익숙한 듯한 묘한 낯센이 반기는 곳. 작가가 아니라 작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쓴 글을 읽을 수도 있는 곳. 책과 어울리는 노래를 들으며 차 한 잔 할 수 있는 곳. 우리의 시간 뒤 편 어느 곳에서는 그런 소소한 책방들이 골목길 사이사이에 숨어있다. 사소한 것들이 모여 소박하게 일궈진 책방은 우리를 새로운 감정의 공간으로 초대한다.

일상적인 나날들 사이에 소박하지만 애뜻한 것을 모아둔 분위  
기라고 하면 그 공간이 지닌 분위기를 설명할 수 있을까. 차분하  
지만 들쭉거리는 그런 곳. 작은 책방에 들어서며 마주했던 놀라  
움은 어쩌면 반복되는 하루와 지겨운 만큼 마주치는 풍경들 속  
에서 조금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신호인 것만 같다. 매일 밥을  
먹다가 어느 하루는 빵을, 또 어느 하루는 파스타를 찾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작은 책방이 주는 새로움은 우리의 일상 속에 필요했던 신선함 중 하나일 뿐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신선함은 마음 속 어딘가 은밀한 곳에 숨어있던 결핍을 맞닥뜨리며 그 자리를 채워줬을 뿐,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혹자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 자신의 삶을 움직인다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안정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이야말로 삶을 안온하게 해주는 덕목이라 할지도 모르겠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어떤 사람들은 유달리 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평이하지도 않은 삶의 흐름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아직 뚜렷하게 잘 모르겠다면, 가끔은 낯선 책방을 찾아 그 곳이 주는 느낌을 온전히 마주하며 내게 결핍돼있는 것이 혹시 돈이나 시간이 아닌, 소박하지만 애뜻한 감정은 아니었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소박하고 애뜻한 그 ‘무엇’을 헤아려 찾아본다면, 날 작은 책방 앞으로 이끌었던 그 마음 역시 온전히 채워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새로움과 낯섬의 설렘으로 이끌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자. 그리고 마음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며 어딘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살펴보자. 그러기에 참 좋은 봄날이 오고 있다.





